

임실N치즈축제 관광객 유혹 순창이 만든 추석선물 인기

지역 매아리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잊지 못할 추억 선사” 이색 홍보활동 전개 눈길



임실군이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17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색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실군이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17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색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대학생 20여명으로 짜여진 플래시몹 홍보단을 구성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전주한옥마을과 젊은이들의 광장인 전북대 구정문 일대에서 '깜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임실N치즈축제 플래시몹 홍보단은 지난 16일 전주한옥마을을 시작으로, 23일 전북대 구정문 광장, 30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주말 관광객을 겨냥한 신명나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전주한옥마을에 불시에 등장해 유령풍의 독특한 의상과 댄스 뮤직에 맞춰 춤을 추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동행유도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타지역 관광객과 전북도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플래시몹 현장 참여 및 SNS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스트링 치즈를 공짜로 제공하고, 즉석 풍선도 제작, 관광객에게 무한대로 배부한다.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열리는 2017 임실N치즈축제는 '웃어봐요 치즈

~즈, 행복 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축제가 열리는 개막식 공연에는 VIXX와 홍진영, 왠아리, 레이더 등 유명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며, 폐막식에는 '벌어져 간 사랑아',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의 불후의 명곡을 남긴 가을남자인 가수 박상민의 미니콘서트도 열린다. 또한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아모르파티에는 인기방송인 박명수가 직접 DJ로 출연해 축제의 밤의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군은 특히 명절 연휴와 맞물려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

8m짜리 대형피자를 만드는 '국가대표 왕 치즈 피자 만들기'와 유럽풍 코

스프레 의상과 피치 캐릭터 의상 등을 입고 펼쳐지는 '유우드림 행복드림 퍼레이드' 등 임실N치즈축제의 이색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8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심민 군수는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임실N치즈축제에 오셔서 여느 해와 다른 색다른 추억을 남기는 명절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며 "천만송이 국화향기와 함께 임실정경 지역에서 자란 안심우유고기도 맛있게 드시고, 치즈 등 각종 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축제의 자세한 내용은 임실N치즈축제홈페이지(www.imselfestival.com/)와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063-643-39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발효장·커피세트선 보여 할인행사 진행 소비자 호응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발효과학으로 만든 선물세트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상품들은 전통의 맛과 발효과학이 융합된 믿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이 인기의 원인이다. 더욱이 추석에 맞아 할인행사도 진행돼 추석 선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에서 만든 한식된장, 한식 간장은 전국 최초 HACCP 승인을 받은 메주를 원료로 사용한다. 또 순창에서 생산된 콩을 계곡재배로 사용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다.

특히 우수한 순창발효미생물과 현대식 제조설비를 활용해 만들어 품질과 위생적인 면에서 믿을 수 있다. 한식 된장, 한식간장, 우리쌀고추장, 감식초, 청국장완을 다양하게 구성해 1호에서 6호까지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세트마다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구입 문의는 전화 063-653-9597로 가능하다.

최근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발효커피도 추석선물세트로 선보인다. 토

종미생물인 고초균과 유산균 2개의 미생물을 적용해 만든 발효커피로 발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한 향과 구수한 맛이 특징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커피다. 10개들이 드립커피팩 2개와 무형문화재 청자기능보유자가 만든 백자천목유머그잔을 포함해 선물세트로 출시했다.

고추장에 토마토를 넣은 토마토고추장도 추석 인기 불풍의 주역이다.

토마토페이스트를 활용해 만든 기존 제품들과 달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확보한 미생물을 융합해 만든 토마토 발효액을 사용하고 두 번의 발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감칠맛이 훨씬 뛰어나다.

군 관계자는 "순창의 발효과학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특산품들이 추석선물로 출시됐다"면서 "올해 추석선물은 순창의 발효과학이 담긴 선물로 마음을 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열두번째 순창장류축제 눈앞 최대 규모 축제성공 가능성 열어

제12회 순창장류축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올해 최대 규모 축제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군은 21일, 장명균 부군수 주재로 제12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설명, 추진상황,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모바일 홍보, 청소년 어울마당,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임금님 진상행렬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순창 귀농귀촌 홍보 운영 등 46건이 집중 논의됐다.

장명균 순창부군수는 "순창장류축제는 12년이라는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고 문화관광체육부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 될 만큼 저력이 있는 축제다"면서 "참여자들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부서가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별로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제12회 순창장류축제는 10월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순창정동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매년 지적되어 왔던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을 통해 남녀노소 관광객들이 맞춤형과 흥을 느낄 수 있는축제로 만들기 위해 2017인본 고추장 떡볶이 오픈파티,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등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순창=이양원 기자

새뜰마을사업 추진 가속페달 밟는다

순창군 인계면 심초마을 국비 포함 12억원 투입 현장실측 사전조사 완료 마을복지환경 강화 본격화

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교류센터 신축공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터파기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마을주민, 고령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마을복지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초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총 42가구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부 주관 '2017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현장실측 등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이달 11일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군은 공모신청부터 현재까지 마을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올해는 1순위인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정비, 주택수리, 복합문화교류센터 신축 등 3억여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최기수 심초마을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심초마을에 취약한 환경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사업이 전국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초지구 새뜰마을사업은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인계면 심초마을에 위치한 '심초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면서 주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심초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경관조성, 생활인프라확충, 위생·안전확보,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국비를 포함해 총 1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해서 군은 지난해 8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지상1층(144㎡), 전시설, 사무

이환주 남원시장 민생 챙기기 오지 마을서 봉사활동 구슬땀



이환주 남원시장(사진)은 21일 보컬연 사촌마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남원시 120민원봉사대는 전기안전공사, 대주건설과 함께 복지상담·한방 진료, 자정면배식 봉사, 농기계 수리, 상수도 및 전기 시설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사촌마을 주민들과 친숙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애로 및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자연스럽게 개진됐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악 성지' 남원으로 명인 출동

대한민국 국악대제 개최 선인 뜻 기리며 추모

제11회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사)민속국악진흥회(이사장 김익규) 주관으로 21일 남원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에서 기관단체장 및 국악 명인 명창 등이 참석해 임숙하고 성대한 분위기 속에 개최됐다.

국악대제는 대한민국의 국악 선인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명창 송홍록 선생을 비롯한 훌륭한 관소리 명창들과 명인들이 배출된 남원에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이번행사는 전국의 유명 국악인 및 남원시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 개제, 초현례, 축문낭독, 아현례, 종현례,

분현례, 분향, 묘역참배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남원시립국악단의 보령, 정화무로 식전행사를 진행 후 대제가 시작돼 초현례에 제1회 춘향국악대전 대상 수상자 조상현 명창, 아현관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남원농악 예능보유자 류명철 명인, 종현례에 전라북도 문화재 46호 전태준 삼현육각보존회장등 많은 명창 명인들이 참석했으며 집례는 전인상 전담대 국악과 교수가 맡았다.

한편, 국악의 성지는 남원시 운봉읍에 2007년도에 개관하여 악성옥보고, 가왕 송홍록, 국창 송만갑, 국창 박초월등 49위의 국악선인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국악관련 전시관 및 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